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코리안 괴물 RYU MLB에서도 '괴물'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첫해 14승 8패에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저스는 동부 지구 1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4일부터 5전3승제의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사진은 지난 30일(한국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와 벌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호투하는 류현진. /연합뉴스

## 정규리그 최종 14승 8패 성공적 데뷔... 투구 192이닝·탈삼진 154개·방어율 3.00

###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선발 유력

2013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코리안 몬스터' 열풍을 몰고 온 왼손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치고 성공적인 데뷔 해를 보냈다. 류현진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시즌 30번째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2실점한 뒤 리키 놀라스코로 교체됐다. 팀이 1-2로 저 패전을 안은 류현진의 정규

리그 최종 성적은 192이닝 투구,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 탈삼진 154개다. 이날 5이닝을 채우지 못해 평균자책점이 다시 3점대로 올라갔으나 12~13승, 평균자책점 3점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던 첫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남겼다. 다승은 내셔널리그 공동 10위, 투구 이닝은 25위, 평균자책점은 9위, 퀄리티스타트 횟수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저스 신인 투수로는 2002년 이시이 가즈히사(14승 10패) 이후 최다승을 거뒀고, 올해 메이저

리그 신인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류현진은 다저스와 6년간 1억4700만 달러(약 1580억원)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장기 계약한 우완 잭 그레이키의 팔꿈치 통증, 베테랑 우완 채드 빌링슬리의 오른손 검지 부상 등으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뒤를 이어 팀의 두 번째 선발투수로 시즌을 맞이했다. 투수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을 받은 커쇼(16승·방어율 1.83), 그레이키(15승·2.63)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에게 필적하는 성적을 올리고 3선발의 위용을 뽐냈다. 다저스가 지난 겨울 포스트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이적료(약 2573만 달러)와 연봉(6년 3600만 달러)을 합쳐 총 6173만 달러(664억원)라는 거액을 투자해 류현진을 영입했을 때 이를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류현진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놀라운 흡입력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 문화를 급세 익히고 초반부터 전혀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투구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한화 이글스에서 7년간 뛰면서 필살기로 다들 칭찬받던 슬라이더, 커브를 유인구로 던진 류현진은 특히 왼손 타자 몸쪽에 들어지는 체인지업,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가는 슬라이더로 성공의 발판을 마

련했다. 투구 못지않게 타율 0.207(58타수 12안타)의 뜨거운 방망이도 늘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팀이 4년 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탈환하면서 류현진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자마자 포스트시즌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류현진은 동부지구 챔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벌이는 디비전 시리즈(5전 3승제)에서 팀의 3번째 선발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와 애틀랜타의 디비전시리즈는 4일 애틀랜타의 홈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터너필드에서 막을 올리고, 류현진은 7일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미국의 '가을 잔치'를 경험한다. /연합뉴스

### 류현진 메이저리그 승패일지(한국시간)

날짜	상대팀	점수	승패
4월	3일 샌프란시스코	0-3	패
	8일 피츠버그	6-2	승
	14일 애리조나	7-5	승
5월	1일 콜로라도	6-2	승
	6일 샌프란시스코	3-4	패
	12일 마이애미	7-1	승
23일	밀워키	9-2	승
	29일 LA 에인절스	3-0	승
	6월 20일	뉴욕 양키스	4-6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10-2	승
	23일 토론토	14-5	승
	28일 신시내티	4-1	승
8월	3일 시카고 컵스	6-2	승
	9일 세인트루이스	5-1	승
	14일 뉴욕 메츠	4-2	승
20일	마이애미	2-6	패
	25일 보스턴	2-4	패
	31일 샌디에이고	9-2	승
9월	12일 애리조나	1-4	패
	17일 애리조나	1-2	패
	25일 샌프란시스코	2-1	승
30일	콜로라도	1-2	패

## KIA 추락 부상타?... '부상도 실력' 프로정신 필요할 때

### 톡&Talk

"뭐 다쳤다고?" 한화와의 홈경기가 열렸던 지난 29일 KIA 덕아웃에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을 깜작 놀라게 한 한바다. 타자들의 훈련 도우미로 나선 박종하 전력분석팀 차장이 선수들에게 "(김)주형이(아직)안 찼다"고 한 말이 발단이였다. 김주형이 아직 타격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지만 선동열 감독의 귀에는 "주형이 다쳤다"로 들린 것이다. 선 감독은 놀란 표정으로 "주형이가 다쳤다고? 어디 다쳤어?"라고 말하며 김주형을

찾았다. 어디동절해 하던 덕아웃에 이내 웃음이 터지기는 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었다. 올 시즌에도 KIA의 부상일지는 빼곡하다. 4월3일 김주천의 손목골절을 시작으로 김원섭(발목), 이용규(어깨) 등 세 명의 선수가 시즌 도중 수술대에 올랐다. 안방마님 김상훈은 엄지 손가락 타박상, 장판지 부분 파열, 좌측 어깨 통증으로 시즌 내내 재활군을 오갔다. 전반기 다승 1위를 찍으며 잘나가던 양현종은 연구리 근육 손상으로 여름을 재활군에서 보냈다. 김선빈의 3할 도전은 늑골 미세 골절로 무산 됐고, 최희섭은 무릎 통증으로 이번 시즌에도 풀

타임을 채우지 못했다. 에이스 윤석민도 어깨 부상에 시달리면서 기대했던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 KIA는 이용규-김주찬-이범호-나지완-최희섭-안치홍-김원섭-김상훈-김선빈으로 짜여진 막강 타순으로 시즌을 출발했다. 하지만 개막전 라인업에서 생존해 있는 선수는 이범호, 나지완, 안치홍 세 명에 불과하다. '부상'을 최우선으로 언급했던 선 감독이지만 올 시즌에도 부상 악몽을 피하지 못했다. 성적하락-훈련증가-분위기 경직-백업 부족-과부하-집중력 하락-성적하락의 악순환 속에서 부상은 돌고 있다. 부상은 어느 팀도 피해갈 수 없는 변수다.

벤치의 역할은 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구단은 기본적인 팀 운영방향과 컬러를 가지고 큰 틀에서 이를 대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수들의 책임과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부상도 실력이다'는 얘기처럼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기 집중력도 부상과 직결된다. '부상병동' KIA에게는 소통과 백업 육성, 재활시스템 강화, '부상은 자신의 가치'라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실패가 실패로만 끝날 지,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을지, 2013시즌이 화두를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원우 광주 FC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선대 컴퓨터통계학과 정인홍 교수가 지난 28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앞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 FC 제공>

### 광주FC, 조선대와 협력 데이터 통해 고객 전략 수립

광주 FC가 데이터를 통해 고객 전략을 수립한다. 광주 FC가 최근 조선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고 구단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석과 날씨, 시간, 이벤트 등 홈경기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구단 운영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분석작업은 조선대학교 컴퓨터 통계학과

정인홍 교수가 주도하며, 통계 분석 리포트를 통해 미래고객에 대한 예측과 타겟 마케팅 등에 대해 구단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시민구단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능동적인 홍보마케팅이 절실하다. 이번 분석작업은 광주가 고객중심의 미래전략을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막

제 10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일 분당 리틀구장에서 개막한다. 광주시 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 전남·북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오는 6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과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수여된다. 참가팀에게는 시합구 2박스(20타)가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선수상

등 10개 부분의 개인상 시상도 이뤄진다. 한편 지난 대회에서는 화강초가 우승을 차지했다. <참가팀(17개)> ▲광주=화정초, 서석초, 수창초, 대성초, 서림초, 송정동초, 화강초 ▲전남=화순초, 순천북초, 여수 서초, 순천 남산초, 나주 남평초, 강진북초 ▲전북=진북초, 군산 신풍초, 군산 중앙초, 군산 남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말·말·말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100타점에 도전하는 나지완, 지난 2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5경기가 남은 만큼 한 경기에서 1타점씩 하면 100타점을 채울 수 있다며, 나지완은 이날 8회 1사 1·2루에서 2루타를 터트리며 96타점째를 기록했다. ▲(이)범호 형이 훈련치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하데=지난 27일 SK전에서 8이닝 1실점(10탈삼진)의 호투를 기록하고도 10승을 챙기지 못한 양현종, 28일 이범호

### 사인볼 부탁받은 이종범 "볼값만 200만원 넘게 들었지"

가 훈련을 치고 들어와서 전날 안타를 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더라며, 27일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KIA는 28일 3개의 홈런을 포함 장단 12안타로 14-6 대승을 거뒀다. ▲승을 챙기라고 해도 안 가져가=선동열 감독, 28일 SK전에서 타자들이 초반에 4점을 만들어줬는데도 소사가 밀어내기 볼넷 등으로 동점을 허용하더라며, ▲혼자 가야겠네=선동열 감독, 박경

태에게 혼자 마산으로 이동해야했다면서, 30일 NC전 선발이었던 박경태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선수단에 앞서 마산으로 출발했다. 일반적으로 다음 경기의 선발 두 명이 함께 움직이지만 NC와 한 경기만 잡혀있어서 박경태 혼자 이동을 했다. ▲볼값만 200만원은 넘게 들었지=사인볼 부탁을 받은 이종범 한화 코치, 선수 시절에는 지인들의 사인볼 요청 부탁이 많아

서 돈 많이 들었더라면서, ▲엄마가 우셨어요=한화전이 열린 지난 29일 처음 1군에 등록된 신고 선수 출신의 내야수 김광연, 1군 등록 소식에 엄마가 우시더라면서, 8회 안치홍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김광연은 9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프로 첫 타석에서 첫 안타를 기록했다. 신종길의 땅볼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